

일본 MSDS 93년4월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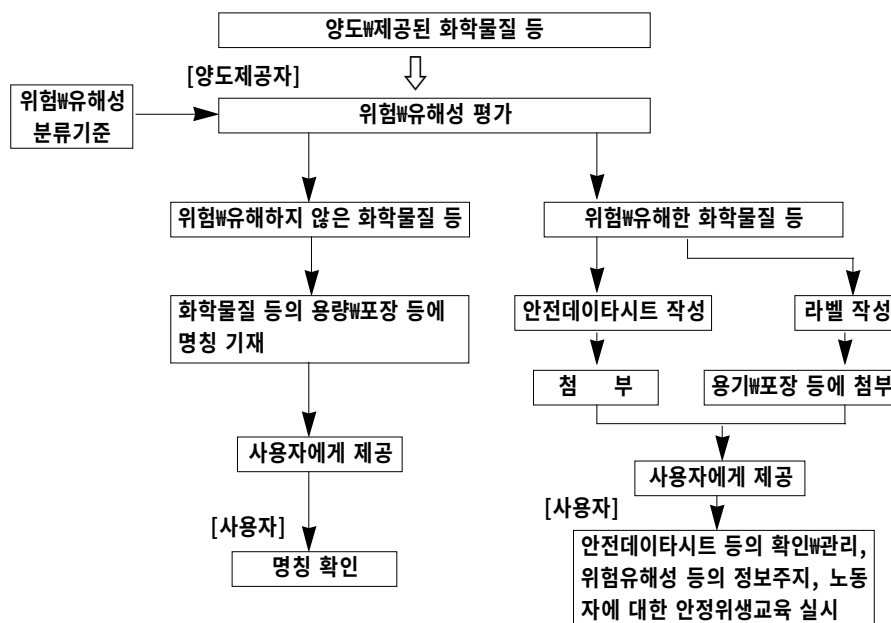
조성 · 성상 · 독성 · 폭발성 등 13개 항목 1만개 화학물질 대상 작성

일본 통산성은 화학물질안전성데이터시트(MSDS) 작성을 일본화학공업협회를 통해 석유화학 · 염료 단체에 요청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원활한 물류촉진을 꾀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재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MSDS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성 · 후생성과의 조정을 통해 MSDS를 93년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일본의 화학물질 등 위험 · 유해표시기준



통산성은 화학물질명에서 시작, 조성 · 성상 · 독성 · 축적성 · 피부자극성 · 폭발성 등 13개 항목을 기입하는 통일된 양식을 1만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이 양식 작성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MSDS를 활용하고 새로운 형식에 따른 시험비용의 증대, 작성기간의 연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도록 희망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은 4월14일, 93년4월부터 노동대신 고시(労働大臣 告示)에 따라 MSDS를 도입 · 지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화학물질심사제조규제법을 소관하는 통산성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노동성과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MSDS에 대해서는 후생성도 독자의 가이드라인을 여름까지 책정할 것을 3월에 명확히하고 있는데, MSDS 전반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인체내 독성영향평가」와 「응급처치」의 두가지이다.